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 1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 2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 3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 4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 후렴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아멘

기도 담당

3/19(화)	3/20(수)	3/21(목)	3/22(금)	3/23(토)	3/25(월)
손수량 안수집사	강성균 안수집사	박종훈 안수집사	이윤익 안수집사	박기철 안수집사	심재현1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190장 다 함 께
기 도 박종훈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16:7~8, 13 인 도 자
찬 양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새벽찬양대
설 교 『진리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함 께
찬 송 288 장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묵상 >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
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
리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4년 3월 21일(목)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코끝에 신선한 공기를 보내주시고 복된 새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은혜의 소낙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렬 34:26). 어제와 변함없는 환경일지라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로 수놓아가는 하루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사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를 진리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임하시사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시사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출산율 0.6%대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함의를 생각해 볼 때, 나라의 총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주 앞에 간구합니다. 사라져 가는 학교들과 교회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 힘들어하는 3040세대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저희를 누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를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희망으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지혜를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따뜻한 품으로 아파하는 가정들을 품어주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번 주일에 있을 ‘성찬식’에 다 참여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어지는 ‘고난주간 전교인 저녁기도회’를 통해 험한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에게 허락하신 목회 비전이 주 은혜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와 제직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